땅콩 시장에서 행복 찾기

이혜진 지음 | 김효진 그림

3, 4학년 중심 학년군

사회: 현대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조사하여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도덕: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1, 2학년

바른 생활: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슬기로운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5, 6학년

사회: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전 학년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이웃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밝고 경쾌하게 그린 그림책이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겪는 엄마와의 갈등을 비롯해 반 친구들의 놀림을 극복하고, 자신조차 편견에 사로잡혀 미처 깨닫지 못한 '다름'과 '차이'에 대해 알고, 존중과 배려를 배워 나가는 민주 이야기가 지구촌 사회,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열린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학습 목표

이 책은 전 학년 다문화 이해 교육에 적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화 차이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도 똑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베트남 부모를 둔 아이에게도 가난한 나라, 한국과 달라서 이상한 나라가 아닌 사람 사는 나라라는 느낌이 드는 따뜻한 책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호티옌이 다른 한국 엄마와 똑같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웃과 더 잘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을 반성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땅콩 시장을 열어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시민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들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기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알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1.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고, 어떤 가족의 형태이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2. 다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3. 민족 · 국민 · 시민의 개념을 알고,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눕시다.
4. 등장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눕시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베트남은 어디에 있을까요?

- 인터넷에서 베트남 사진을 열 장 정도 모아서 보여 주고 어떤 나라의 모습일까 물어봅니다. 이때 사진은 가능한 베트남의 특색이 살아 있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리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도 넣는 게 좋습니다.
- 세계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시다.
- 베트남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지도 이야기 나눕니다.

● 오늘 소개할 책은 베트남에서 온 호티옌 아줌마 이야기임을 말해 주고,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눠 봅니다.

● 인터넷으로 베트남과 관련한 사진도 간단히 살펴봅니다.

●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나라는 어디 있을까 지도에서 찾아봅니다.

▶ 중학년까지는 세계 지도 보기를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세계 지도에 쓰인 글씨가 워낙 작으므로 가능하면 지구본이나 지도를 모둠별로 한 개씩 두고 찾는 게 좋습니다.

▶ 베트남의 평범한 사진, 어찌 보면 우리나라 모습인가 할 정도로 평범한 모습을 꼭 보여 주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와는 아주 다른 특이한 것이 그곳에 있을 듯한 착각에 빠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뜻을 적어 봅니다.

● ‘다문화’라는 말을 들어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 포스트잇에 ‘다문화’ 하면 떠오르는 낱말들을 한 장에 하나씩 적어서 모둠판(4절지 등)에 붙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적습니다. 많이 적을수록 분류할 게 많습니다.

● 모둠별로 모든 포스트잇을 다시 칠판에 붙여 보고 어떻게 분류했는지 알아봅니다. 학생 수가 적다면 칠판에 너댓 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그곳에 바로 붙이게 합니다.

● 낱말이 긍정적이면 노란색, 부정적이면 파란색,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갈색 등으로 정하여 아이들과 함께 낱말에 동그라미를 그려 봅니다.

●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낱말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 이제 낱말이 아니라 ‘다문화’의 뜻을 문장으로 써 봅니다.

● 선생님은 잘 듣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소감을 말합니다.

▶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재미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의식 속에 이 낱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고 책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책을 읽고 난 뒤에 할 질문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후 활동 1

책을 읽고 난 뒤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놀이터에 혼자 남겨진 민주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 내가 더러운가? 왜 저러지? 마음이 안 좋았을 거다 등

➔ 이름을 바꾸라 하고 다문화 교육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민주를 보고 엄마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 미안하다, 슬프다, 후회가 든다 등

➔ 공개 수업에 일일 교사로 참가한 엄마를 보고 민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미안하고 자랑스럽다 등

➔ 땅콩 시장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 장터가 땅콩처럼 작으니까 잘 어울린다.
- 땅콩 껍질 속 두 개의 알맹이가 함께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장터와 이웃이 함께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 있다.
- 음식을 파는 곳이니까 고소한 느낌도 든다.

➔ 땅콩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까닭을 들으면 다문화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후 활동 2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민주와 같은 마음, 다른 마음 찾기

● 민주가 자라면서 가졌던 마음을 포스트잇에 적어 봅시다. 다른 엄마들이 친구들을 데려가 버려서 서운한 마음, 친구가 놀려서 아픈 마음, 엄마가 자랑스러웠던 마음, 엄마가 학교에 안 왔으면 하는 마음, 엄마를 모른 척하고 싶었던 마음, 친구가 나를 놀려서 숨고 싶었던 마음 등으로 적으면 됩니다.

● 이때 민주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면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고, 그런 적이 없다면 파란색 포스트잇에 적게 합니다.

● 쓴 종이를 색깔별로 모아서 붙입니다.

● 상황은 다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민주와 비슷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의 마음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것과 다를 게 없음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언제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도 민주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어울림 카펫 만들기

● 옛날 사람들은 생활용품에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문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은 함께 어울림 카펫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 책을 보고 베트남에 관해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눕니다.

● 6~8명씩 모둠을 만듭니다.

● 알게 된 것 중 한 가지를 기호화합니다. 예를 들어 '신 짜오'라는 인사말이라면 '신 짜오' 글자를 예쁘게 적는다든지, 졸라맨이 인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말풍선에 '신 짜오'라고 적으면 됩니다. 같은 모둠 안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서로 다른 것을 기호화하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 전지를 가로로 길게 잘라서(너비 10센티미터 정도) 한 장씩 아이들에게 나눠 줍니다.

● 크레파스나 물감을 이용하여 자신이 만든 베트남 문화를 나타내는 기호를 똑같이 반복해서 그립니다. 기호의 주변에는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것도 자기 마음대로 넣어 줘도 됩니다. 카펫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진하게 그리고 색칠하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 각자 그린 긴 종이를 다시 전지 크기로 붙입니다.

● 모둠별로 전지를 붙이고 어떤 내용을 기호화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만들면 됩니다. 이때 배경 색을 칠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관련된 이미지와 색을 정하면 이야깃거리가 많아집니다.

월남쌈 만들어서 나누어 먹기(모둠 활동)

- 월남쌈은 먹어 본 아이들이 많고, 만들기가 어렵지 않으니 같이 만들어 먹어 봅시다.
- 재료를 한 가지씩 나누어 가져와 길게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 뜨거운 물과 소스, 라이스페이퍼는 선생님이 한꺼번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월남쌈을 싸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 월남쌈과 비슷한 우리나라 음식은 뭐가 있을지 찾아봅니다(싸 먹는 걸로 김밥, 만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서로 어울려 사는 땅콩 우리 반 그림 그리기

- 큰 전지 두 장(이때 땅콩과 비슷한 색 전지면 더욱 좋습니다)을 이어 땅콩처럼 그려 놓습니다. 책 뒤쪽 그림을 참고합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특징을 살린 자기 얼굴을 그려서 오린 뒤 땅콩 속에 들어가도록 붙입니다.
- 땅콩 알맹이 안에 우리 반 이름을 크게 씁니다.